

# ‘구해줘’, ‘후아유’ → ‘처용’ → ‘오나귀’ 잇는 여름 명작



“올 여름 시청자들의 서늘함은 ‘구해줘’가 책임진다.” 장르를 명가 OCN이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 ‘구해줘’가 역대 케이블 여름 특집 드라마의 명성을 이어 시청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전망이다. 오는 8월 5일 대망의 첫 방송을 앞둔 OCN 새 오리지널 드라마 ‘구해줘’(극본 정이도/ 연출 김성수/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히든 시퀀스)는 사이버 종교 집단에 맞서 첫 사랑을 구하기 위한 뜨거운 춘남들의 최후를 고군분투를 그리는 사이버 스릴러 드라마. 국내 드라마

## 여름 드라마 명성 이어 등골 오싹케 할 전망 국내 최초 사이버 종교 주요 소재...오감 자극

최초로 사이버 종교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여름 특집극으로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구해줘’는 매년 여름마다 신선함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소재로 시청자들을 머리끝까지 쭈뼛 서게 한 케이블 드라마들의 흥행 역사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작은 2013년 방송된 tvN 고스트 멜로 드라마 ‘후아유’다. 한국판 ‘고스트 위스퍼러’로 불리기도 했던 ‘후아유’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뒤 영혼을 보게 된 여자와 직접 보고 만진 사실만을 믿는 남자의 이야기로, 경찰청 유실물 센터에 남겨진 물건 속 영혼들의 억울한 사연을 다루며 판타지한 볼거리와 소재로 인기를 모았다. 뒤이어 OCN에서 방송된 드라마 ‘귀신을 보는 형사: 처용(이하 처용)’이 신개념 ‘공포 수사극’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처용’은 귀신의

도움을 받아 도시괴담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형사 처용의 이야기를 담았다. 시즌1의 인기로 힘입어 늦여름 편성된 ‘처용 2’(2015) 역시 사실적인 귀신 묘사와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장르물 마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처용 2’와 함께 2015년 또 다른 ‘대박 흥행’을 이끈 tvN 여름 특집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은 처녀 귀신에 빙의된 주방 보조가 누군가의 사연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스타 셰프와 사랑을 꽃피우는 ‘달콤 오싹 로맨스’로 전무후무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로맨스와 스릴러를 넘나든 ‘오 나의 귀신님’은 최고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2015년 여름을 주름잡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방영된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을 때려잡아 돈을 버는 퇴마사와 수능을 못 치른 한오귀 귀신이 된 여고생 귀신이 동고동락하며 악귀를 퇴치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 무더위에 맞설 호러 소

재에 코믹함을 적절히 결합한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다. 사실적인 CG와 섬세한 분장의 귀신 캐릭터를 비롯해 악귀를 향한 경고 등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 방송 이후에도 수작으로 호평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구해줘’가 케이블 채널의 걸출한 여름 특집 드라마의 역사를 이어갈 ‘히든카드’로 등장, 무더위에 허덕이는 시청자들의 간담을 제대로 서늘하게 만들 전망이다. ‘구해줘’ 제작진 측은 “기존 작품들이 주로 귀신을 소재로 한 ‘납량 특집’의 성격을 갖췄다면, ‘구해줘’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이버 종교 소재를 바탕으로 더욱 리얼한 몰입도와 서늘함을 안길 계획”이라며 “다년 간 사랑받은 여름철 드라마에서 더 나아가 한 차원 다른 시원함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구해줘’는 연재 당시 작품성과 화제성을 모두 인정받은 조급산 작가의 웹툰 ‘세상 밖으로’를 원작으로 한 사이버 스릴러 드라마다. 예측불허 스토리 전개, 재창조된 캐릭터 플레이를 통해 원작을 넘어선 새로운 작품의 탄생을 일린다. ‘구해줘’는 8월 5일 밤 10시 20분 OCN에서 첫 방송된다.

## “한끼에 80만원”... ‘맛있는 녀석들’이 특별한 이유

떡방 예능은 사라지고 있지만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의 식욕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2015년 1월 첫 방송과 벌써 2년 7개월째 ‘떡방’ 진행 중이다. 지상파 예능도 100회를 넘기 힘들지만 벌써 13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케이블계의 메인 무대 CJ E&M 계열 채널이 아닌, 코미디TV를 통해 전파를 타고 있음에도 화제성은 tvN 예능 못지않다. 지난해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떡방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SNS에는 짧게 편집한 영상이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고 있다.

예능가를 장악하던 떡방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맛있는 녀석들은 무사히 살아남아 여전히 먹고 있다. ◆ 진짜 먹는다 ‘맛있는 녀석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네 MC, 김준현·유민상·김민경·문세운의 힘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데다 맛있는 먹는다. 바게트 빵과 아이스크림 같이 먹기, 남은 차킨으로 치밥 만들기 등 자신만의 꿀팁도 아낌없이 전수한다. 한끼에 80만원까지 밥값이 나오기도 했다. 연출자 이영식 PD는 “꽃등심 편에서 80만원어

치를 먹었다. 편지점에서만 7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녹화 때마다 5시간씩 먹기만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타 떡방 예능을 따라올 수 없는 퀄리티의 떡방을 보여준다. 걸그룹 멤버가 북스럽게 먹는 ‘척할 때 이들은 카메라와는 상관없이 맘껏 식욕을 자랑한다. 이 같은 리얼함은 네 사람의 떡방 케미로 이어진다. 굳이 웃겨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먹고 떠들고 즐기다 보니 먹는 이도 보는 이도 즐거운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같이 먹는다 최근 ‘맛있는 녀석들’은 시청자



와 함께 먹고 있다. 지난 21일 새롭게 선보인 ‘혼밥특공대’ 특집을 통해서다. 멤버들이 사연을 받아 시청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혼밥 장소에

‘혼밥특공대’의 출동은 성공한 것이고, 또 신청자가 없다면 멤버 혼자 혼밥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신청자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온다. 시청자가 적극 참여하는 생방송 리얼 예능이다. ‘혼밥특공대’는 지난 방송분(1.8%)의 2배에 달하는 3.6%(남성 코리안 수도권 남녀 25~44세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이영식 PD는 “한 시청자가 위수술 후 밥을 소화시키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아갔다. 사연을 보면 적 있다. 여기서 착안해 시청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 어떨까하는 ‘혼밥특공대’ 기획이 떠올랐다”며 “요즘 혼밥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외로움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 ‘슈퍼배드3’, 외화 예매율 1위



영화 ‘슈퍼배드3’가 텡케르크

를 제치고 외화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슈퍼배드3’는 악당 은퇴를 선언한 ‘그루’에게 실망해 스스로 악당이 되기를 결심한 ‘미니언’과 쌍둥이 동생 ‘드루’의 존재로 슈퍼배드의 운명을 깨닫게 된 ‘그루’의 본업복귀 프로젝트를 담은 애니메이션.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오전 10시 기준)에 따르면 ‘슈퍼배드 3’는 예매율 11.2%, 예매 관객 수 5만 4천명을 기록하며 ‘군함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50만명을 돌파하며 폭발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텡케르크’를 제친 결과로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 ‘인사이드 아웃’(2015년 7월 9일 개봉)이 개봉 전 날 기록한 24,727명과 2016년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 ‘주토피아’(2016년 2월 17일 개봉)의 개봉 전 날 예매량 16,607명을 각각 약 2배, 3배 뛰어넘는 기록이다. ‘슈퍼배드’ 시리즈는 픽사를 위협할 기세로 성장 중인 일루미네이션의 대표 애니메이션 브랜드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니언’은 스킨오프로도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했다.

## “일본도 통했다” 트와이스 日 앨범 판매량 20만장 돌파



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리콘 집계 기준 판매량 20만장을 돌파했다. 25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 6월 28일 공개한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TWICE’는 23일자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에서 2352장의 판매고를 기록, 5위

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이와 함께 오리콘 집계 기준 총 20만 18장의 판매고를 일본 데뷔앨범으로 20만장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TWICE’는 지난 6월 28일 공개 후 근 한 달째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차트의 톱10중 6월 발매 앨범은 트와이스의 작품이 유일하다. 아울러 이 앨범은 출하량에서도 25만장을 넘어서다. 트와이스의 앨범은 발매와 함께 4일 연속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2위를 지키다 도쿄체육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연 지난 2일부터 여주행에 성공하면서 사흘 연속 해당 차트 정상을 고수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 앨범은 지난 5일 공개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2위에 올랐고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매된 K팝 아티스트의 앨범 중 발매 첫 주 최다 판매량 기록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일본 주요 언론도 트와이스의 현지 인기 대해 연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후지TV ‘베지마시TV’에서는 트와이스를 일본 여성중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 톱10 중 1위로 선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음력 6월 4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 **황소** 36년생 건강을 챙겨라. 48년생 산행을 삼가라. 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4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사슴**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해**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2년생 계약운이 있다. 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6년생 꿈을 접지마라.
- ▶ **사슴** 39년생 미련을 버려라. 51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5년생 회비가 교차하지 무리수는 금물이다. 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 **황소**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해**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7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9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해**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5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9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 **황해**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해**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 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 **황해** 33년생 개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 81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이 이룬다.
- ▶ **황해** 34년생 외출을 삼가라. 46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해**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7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3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